

2011

해외의료봉사 \_ 몽골 1차 2011. 5. 14~21

# 몽골에 다녀와서

드넓은 벌판, 파란 하늘, 뽀얀 구름 사이를 휘젓고 다니는  
거침 없는 바람이 되어 나르는 꿈을 꾀니다.  
몽골에서의 1주일엔 제게 깨어나도 지워지지 않는 꿈처럼  
오래도록 행복한 미소를 남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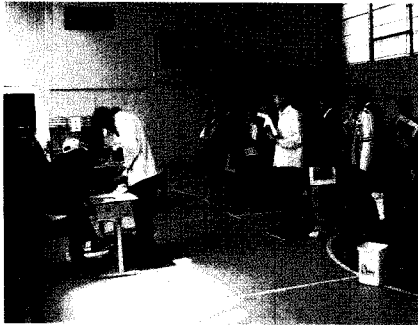


한선애  
성 빈센트 병원 간호사

거창하게 봉사란 말로 간호부장님과 외래팀장님께 격려의 인사를 받고 커다란 가방 두 개를 가지고 인천공항에 홀로 서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혼자 떠나 볼 것인지, 이제라도 도망쳐 집으로 갈 것인지……. 그러다가 예쁘고 착한 청정 제주 아가씨를 만나 수다가 시작되었고, 커피 한 잔을 나눈 순간부터 내내 행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개인 짐은 모두 기내에 싣고, 붙이는 짐은 공동 짐을 보낼 것이라 해서 터질 듯한 기내용 가방을 들고 첫걸음부터 진땀을 빼는 여정이어서 여행기가 길어 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비행기에서 내려서 다르항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이호열 신부님의 교통사고 이야기를 자장가 삼아 쪽 잠을 자며 돈보스코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눈이 맑은 아이들에게 연예인인 듯 볼펜으로 손에 이름을 적어주며 바보 웃음을 함께 웃고 내내 몽골어로 진행되는 미사에 내 식대로 한글 주기도문을 외며 이방인임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말이 통하지 않아도 주고 받는 눈빛과 마음으로 서로를 알아 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 없었습니다. 아이들과 수건 하나를 가지고 뛰고, 넘어지며 놀다가 제 집에서 출근하듯 하늘과 바람을 느끼며 제16번 학교와 돈보스코센터를 하루 두 번씩 다녀왔습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은 처음 해보는 검사들로 신기해하고 두 눈을 가리거나 윙크를 하는 등 많은 에피소드를 만들어냈고, 우리들은 화장실을 찾기 위해 두 다리를 꼬거나 힘을 주는 등의 몸짓을 여러 번 하기도 하였습니다.

오지 않는 컨테이너 속의 식재료를 뒤로하고도 수령동지(조리장)의 반찬은 날로 화려해져서 러시아 오이에 중국



달걀, 신부님의 텃밭에서 서리해온 파까지 바닥을 드러내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학교 팀과 병원 팀으로 나뉜 우리들은 일과 후에 서로 하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느라 낮보다 더 바쁜 밤을 지냈고, 멀리서 사흘 걸려 찾아온 환아를 위해 택시비를 내어 주는 간호사와 안타까운 의료 현실에 눈물 짓는 동료들 다독이며 하루하루가 지났습니다.

첫날부터 화요일까지는 MBC 함께 사는 세상 카메라가, 수요일엔 몽골 뉴스 카메라가 우리 팀을 따라다녀서 한류 스타 연예인 안 부러웠고, 기상악화로 못 갈 줄 알았던 비행기가 서울로 가는 바람에 어정쩡한 인사로 이별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어떤 영화배우의 대사처럼 드넓은 벌판을 달리는 말처럼 자유로운 몽골의 대지에서 나는 책임과 의무를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간호사이기에, 또한 두 아들의 엄마로써 함께 사는 세상에서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제 조금이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사랑의 날개 6기 1차팀 선생님들께 사랑과 감사를 전합니다. 사랑합니다~~

